

Gibbs, J. G., 「바울 신학의 우주적 그리스도론과 생태학적 위기」, 『神學思想』 제2호(1973. 가을).

4. 자유인의 길

바울로의 주제는 구원론이다. 신론(神論)도 그리스도론도 종당에는 구원론에 귀결된다. 볼트만(R. Bultmann)은 바울로 신학은 곧 ‘인간학’이라고 했다. 이 말에 곧 저항감을 느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학이라고 할 때는 그 인간이 있어야 할 본래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뜻이며, 그것은 ‘하느님 앞에 이웃과 더불어 의의의 존재’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인간으로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만 묻기로 하자.

1) 앞을 향해 달리는 삶(필립 3, 1~14)

형제들이여, 나는 아직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께서 위로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입니다(필립 3, 13~14).

바울로는 두 관점에서 자기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과거 속의 자기와 다른 하나는 미래(오고 있는 것) 속에서의 자기인 것이다.

과거에는 자랑스러운 것이 많았다. 그는 본문 4절에서부터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신에서 신뢰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